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사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미 공군에서 조종사 리처드 바크 가 지은 '갈매기의 꿈'이란 책이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큰 꿈을 가져라, 이상을 높게 가져라.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라.'는 교훈을 얻는다. 여기 나오는 조나단이라는 갈매

기는 단지 먹고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끈질기고 처절한 날기 연습으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참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보편적인 편한 삶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어 자기의 꿈을 끝내 이루어낸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날아다니는 것만 의 가장 단순한 사실, 즉 먹이를 찾아 해안으로부터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마음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었다. 조나단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남들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

를 알아보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조나단의 부모는 답답하였다. "조나단, 이것 봐라. 우선 먹이가 무엇이든 그걸 어떻게 잡는가? 를 배워라. 나는 공부도 좋지만 나는 것만으로는 너를 먹여주지 못한다. 네가 나는 이유는 단지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나 조나단은 먹고사는 것보다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 즐거웠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였다. 연습함에 따라서 1천 피트, 2천 피트,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 10초안에 그는 시속 90마일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보통 갈매기로는 살기 싫어, 나는 끝까지 해 볼 거야" 이렇게 다짐

하며 올빼미의 눈을 가리지 않았어도 캄캄한 밤에도 연습을 하였다. 시속 140마일까지 날게 되었다. 5천 피트 상공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아래에 날고 있는 갈매기는 잘 보이지도 않고 여선들이 작은 점과 같이 보였다. 그 높은 상공에서 떨어지면 수백 조각으로 박살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속 214마일의 속도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연습을 하였다.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욕심이 생겼다. 다시 8천 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방향 바꾸기, 다시 솟구치기, 내려 날기, 공중제비 넘기, 천천히 빙글빙글 돌기, 수직으로 돌기, 뒤집어서 맴돌기, 머리로 갈매기 받기, 바람개비처럼 맴돌기 등 배울 것이 너무 많았지만 조나단은 마침내 다 이루어낸다. 조나단은 갈매기 중의 갈매기였

다. 모든 갈매기들이 조나단의 훌륭한 활에 감탄하고 그를 따르며 '우리의 지도자 조나단 만세' 하고 외쳤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꿈을 이루어내어 모두가 추앙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우리도 조나단처럼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삶에 도전해볼까? 다. 비록 위험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오늘의 안주에 패배를 부르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볼 일이다. 예지에 빛나는 안목과 결단으로 박차고 일어설 일이다.

저미손 역센 팔 우주를 통채로 삼키려는 거대한 의지.그대 보았는가 오르다 거기 불어 죽을지언정 멈출 줄 모르고 아방의 불씨 햇불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시뻘건 의지 하늘 땅 끝 요동치는 마그마 그의 열정 누가 막을 건가
칭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모두 보고 배웠다
그의 의지 그의 아방 그의 열정

- 담쟁이의 꿈 -

고속도로 방음벽 기계 넘치게 오르는 담쟁이의 당찬 꿈.그대 보았는가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도로 위 '블랙 아이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이치원
/담양소방서 119구조대장

지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 아이스는 눈, 비가 도로 위에서 먼지나 기름 등과 섞이면서 도로와 비슷한 색상을 띠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구분되지 않고 특히 눈이나 비 등이 내린 후 그늘진 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고가도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린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제동력 및 조향력 상실에 따른 교통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중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평소보다 더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나가야

광주, 전남지역에 기온이 낮아지고 조만간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도로의 불청객인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차량이 도로위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은 해보았을 것이다. 눈이 오고 기온이 낮아져 도로가 얼면 제동거리는 급격히 늘어난다.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

한다. 빙판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미리 위험을 예측해 제동 시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이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니 주행 전 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 공기압 확인이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특히 기상정보와 도로 위 동향을 잘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3대 전기제품 화재예방을



박진호
/여수소방서 평어119안전센터

한 화재 건수는 1037건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263명으로 생각보다 큰 수치다. 난방용 겨울용품 구매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12월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보일러나 난방기구, 전기장판 등 난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방용 겨울용품의 사용은 급증하지만, 이에 따른 취급 부주의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구매 방법부터 알아보자. 첫째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인증(KC)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전류, 과전압,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열선은 과열 차단 장치와 온도조절 센

겨울철 화재 위험이 큰 3대 전기제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이 있다. 겨울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주 작은 부주의에도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시설 화재는 총 4만 103건이 일어났으며, 그중 23%가 겨울철 화재로 인한 것이며, 겨울철 3대 용품으로 인

서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과열 차단 장치란 과열을 미리 감지하고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둘째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은 난방용품 사용 전에는 쌓인 먼지 털어주고 전선 상태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장판은 접지 않으며,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 경우 열선이 끊어져 고장과 함께 화재의 원인이 되

이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플러그 뽑아둔다. 전기장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으며, 주변에 가연성 물체를 두지 않고, 소화기를 배치해둔다. 겨울철에 전기장판과 난방용품 사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투고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상무...381-5310	오치...261-9461	지사안내	보성...010-3626-4776	무안...010-9271-8517
총장...223-4123	서부...651-0004	문흥...261-9462	목포...010-8718-1234	화순...010-2430-5055	여수...010-8587-2288
무등...224-4188	송암...362-4102	일곡...573-3200	순천...010-9656-1383	영광...010-9860-5489	함평...010-3095-5842
동부...234-4235	농성...362-4102	동문...525-8894	광양...010-9656-1383	완도...010-5066-4708	영암...010-4604-3742
학동...225-0651	진월...671-7276	두암...266-1920	평안...010-3644-7272	장흥...010-5665-8354	진도...010-8525-4567
광천...374-2120	봉선...675-5530	철단...971-1920	나주...010-3644-1309	신안...010-4217-9480	해남...010-3471-6542
화정...374-3713	중양...521-5640	신창...955-0451	담양...010-3602-3550	강진...010-3775-2369	광산...010-7613-4320
금호...376-7153	중흥...433-1503	월곡...941-9174	곡성...010-3647-6161	장성...010-3610-7824	
쌍촌...371-9584	양산...574-3745	송정리...010-5524-3638	구례...010-8597-0053		
	문암...521-4270				